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정 연 호* · 류 집 숙** · 신 효 식***

담양여자중학교* · 서강정보대학 아동복지과**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Variables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tudents in Jeonnam

Jung Yeon-Ho* · Ryoo Jom-Sook** · Shin Hyo-Shik***

Damyang Girl's Middle School · Dept. Child Educare & Social Welfare, Seokang College***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s,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ccording to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variables and to offer the basic data that are needed to improve desirabl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Results of thes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w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dolescent's birth order. Close communication with father w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dolescent's sex, adolescent's birth order and family type.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w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dolescent's sex. Close communication with mother w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dolescent's sex and birth order.

2. Family cohes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dolescent's sex and income level. And family adaptabil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dolescent's sex, adolescent's birth order and income level.

3. Family cohesion was influenced by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income level and adolescent's sex. And family adaptability was influenced by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close communication with father, income level and adolescent's sex.

주제어(Key Words) : 의사소통(communication), 가족 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

I. 서 론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가족원 개개인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내면화시키고 인성을 발달시킨다.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동기까지는 가족의 내적인 단합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함께 그들의 관심이 가족으로부터 또래집단으로 옮겨가고 부모의 지배나 간섭을 벗어나려는 심리적 이유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독립적 자아를 탐색해가므로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점점 축소되고 세대간의 의견 차이도 심하게 되어 가족생활 발달 단계상 가족의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기존의 생활방식으로부터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의 재적응을 요구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로부터 이탈하고 분리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혹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 때 가정 내에서 새로운 방향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의 관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의사소통은 관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반면, 관계 역시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Honevcutt, Wildson & Parker, 1982), 가족 내에서 가족원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 청소년간의 대화는 부모 자녀간의 가치·감정 전달을 통하여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며, 개방적이고 감정이입적이며 지지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가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민하영, 1991).

청소년기는 개인의 발달 측면과 부모-자녀 관계 측면

에서 심리적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점점 축소되고 세대간의 의견 차이도 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부모의 이해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질적으로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로 진입하여야 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변화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중요한 자원은 응집성과 적응성이다(김명자, 1991). 응집성과 적응성은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원 상호간에 지나는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원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에서 문제에 대한 빠른 인식과 해결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유지와 발전에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필요하며, 가족원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는 가족원들의 관계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즉 가족의 기능수행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과정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 내용과 형태가 제공되어 지므로, 가족원의 의사소통에 따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Galvin & Brommel, 1986). 또한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역기능적 수준에서 기능적인 수준으로의 이동을 쉽게 해 주는 역할도 하여(Barnes et al., 1985) 가족 내에서 가족원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로 매우 중요하므로(장호선, 1987) 의사소통에 따른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남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의 일차적인 기능으로서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내에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는가?
 - 2-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사람들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행동에 기호하는 수단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가족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민하영, 1991). 특히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인성이나 행동발달 등에 관계되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의 부모와 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 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과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의사소통 소재의 선택에 조심하며,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유형 관련 변인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Barnes 등(1985)은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지각하는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노정화, 2002; 민혜영, 1990; 장호선, 1987; 홍보연, 1997). 그러나 옥선화(1985)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화는 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부자간·모녀간의 대화통로가 발달되어 있고, 딸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김순옥(1990)은 아들보다는 딸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이라고 하였고, 이금(1993)은 부모가 남학생에게 부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남·여학생 모두 모와 더 긍정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였다. 차은정(1993)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고 국길숙(2003)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나 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녀 연령의 경우 장호선(1987)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점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점수가 높게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옥(1990)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으며 조은경(1992)은 재학교 별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영숙(2001)은 대체로 자녀의 연령이 낮은 집단이 아버지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신수정(1994)은 형제자매수가 적을 때 더 활발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고, 김진희(1989)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른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이영숙(2001)의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홍보연(1997)의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첫째가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금(1993)은 어머니가 막내에게 우호적 비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장호선(1987)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아무런 상관관계

가 없었지만, 김진희(1989)는 부모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가 전문직 종사자일 때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희(1988)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권보연(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대졸인 경우보다 더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

가족 형태에 따라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나(김진희, 1989; 장호선, 1987), 최희웅(1977)은 확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대화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는 조은경(1992)은 대체로 가정의 소득이 높을 때 더 활발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고 김순옥(1990)도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국길숙(2003)의 연구에서는 생활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은 차이를 보여 생활정도가 낮은 집단은 부폐쇄형과 모폐쇄형 의사소통을, 생활정도가 높은 집단은 부개방형과 모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영(1987)은 대체로 직업의 지위가 높고,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을 때 더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고 백승미(2003)는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할 때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아버지의 직업이 없을 때 모문제형 대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이경주(1989)는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이금(1993)은 모의 연령이 40대일 때 가장 우호적 비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의사소통에 적극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호선(1987)은 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대화시간이 많다고 하였고 조은경(1992) 역시 부모의 연령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나타낸다고 하였다.

종교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여러 연구(국길숙, 2003; 이영숙, 2001)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 응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

적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이상길, 2002) Olson, Russell 과 Sprenkle(1983)은 가족 구성원간의 분리되거나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가족 응집성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가족 응집성이 매우 낮거나 높은 '과잉분리된 가족'이나 '매몰된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이고, 가족 응집성의 수준이 적당한 '분리된 가족'이나 '연결된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비행청소년이나 문제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 응집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가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Olson, McCubbin, Barners, Larsen, Muxen & Wilson, 1992).

가족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Olson et al., 1992), Olson 등(1983)의 Circumplex Model에 의하면 가족의 적응성과 기능은 곡선적인 관계를 가져 그 수준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직된 가족'이나 '혼동된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이고, 가족 적응성의 수준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융통적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 응집성과 마찬가지로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가족 적응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문화가 민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Olson et al., 1992).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박은주(1994)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금(199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았다. 또 형제수에 따른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은 형제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높았고(김진희, 1989), 박은주(1994)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가족 응집성은 차이가 나타나 첫째자녀가

더 높은 응집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김진희(1989)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높다고 하였다. 공인숙 등(1991)은 가족 응집성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보다 대학 중퇴 이하인 경우일 때 가족 응집성이 낮다고 하였고 이금(1993)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김진희(1989)는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자녀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높다고 하였고, 이금(1993)은 부의 직업이 행정·관리직일때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이금(1993)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살펴보면, Galvin 등(1986)는 가족내의 응집성은 가족원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의사소통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가족원들이 응집성을 발전시키고 유지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의사소통을 통해서라고 하였다.

Olson 등(1979)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균형적으로 가족체계를 움직이게 하며,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다고 한 반면,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축소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Barnes 등(1985)는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 응집성·적응성의 만족수준이 모두 높다고 하였다.

김진희(1989)는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고, 민혜영(1990)도 가족 적응성과 응집성은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부모와의 제한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김윤희(1990)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점수는 높고, 개방형이나 문제형 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점수도 높되, 특히 적응성 점수보다 응집력의 점수가 더욱 높다고 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응집성 및 적응성과 밀접한

상호인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조은경(1992)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가장 큰 독립적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 특히 부와의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변화 대처능력에 있어서 부모와의 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자녀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일차적인 기능을 하게 됨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균형적으로 움직이고, 또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남도 읍·면 지역 남·여 공학 인문계 고등학교 6개교의 1, 2, 3학년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총 450부의 질문지 중 부실기재한 자료를 제외한 42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48.2%, 남학생이 51.8%를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16-17세가 46.6%, 18세가 29.4%, 19세가 24.0%를 나타냈다.

형제수에 있어서는 형제가 없는 경우가 6.2%, 1명은 35.6%, 2명은 13.6%, 3명 이상은 25.8%를 나타냈고 출생 순위는 장자가 33.4%, 중간이 25.2%, 막내가 35.2%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부연령과 모연령 모두 40-50세 미만이 각각 74.5%, 78.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교육수준은 아버지가 51.7%를, 어머니는 42.9%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단순노무직 및 일반판매종사자가 13.2%, 농·공·상 등 1차 산업 종사자가 66.2%로 전체의 79.5%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농·공·상 및 전업주부인 경우가 87.2%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1.1%, 종교는 없는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29.4%, 불교가 20.6%, 천주교가 4.6%, 기타 3.2%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Barnes 등(1982)의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묻는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자녀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형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런 편이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93, 문제형 의사소통이 .88,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91, 문제형 의사소통이 .79로 나타났다.

2)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Olson, Portner와 Bell(1982)이 제작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FACES II)를 한국의 가족상황에 맞도록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집성은 정서적 유대,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 및 오락 등에 관한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적응성은 가족내의 권력, 협상방식,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과 관련된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형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런 편이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신뢰도는 응집성이 .72, 적응성이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s 다중범위검증(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고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계수 산출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일반적 경향

<표 1>과 같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문제형 점수보다 개방형 점수가 높았다.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모의 점수가,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부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응집성 점수는 2.97, 가족 적응성 점수는 3.16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표 1> 부모와의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의 일반적 경향

변인		M	SD
의사소통	부개방형	3.00	.97
	부문제형	2.96	.72
	모개방형	3.56	.87
	모문제형	2.82	.67
응집성		2.97	.45
적응성		3.16	.67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부와의 의사소통은 출생순위에 따라 부 개방형과 부 문제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의 형태와 성별에 따라 부 문제형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장자인 경우에 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막내인 경우에 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핵가족인 경우가 확대가족에 비해 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

변인	구분	N	부 개방형			부 문제형			모 개방형			모 문제형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여	198	2.99	1.04		2.87	.75		3.75	.87		2.74	.66	
	남	212	3.01	.91		3.05	.69		3.38	.83		2.91	.66	
	t		-.17			-2.52*			4.43***			-2.67**		
연령	16세	69	2.96	1.03		3.00	1.76		3.52	.91		2.86	.67	
	17세	126	2.98	.94		2.97	.72		3.53	.89		2.85	.67	
	18세	120	3.03	1.02		2.96	.72		3.53	.87		2.86	.65	
	19세	95	3.02	.94		2.92	.70		3.04	.82		2.73	.69	
	F		.11			.18			.43			.86		
형제수	0명	24	3.21	1.11		3.09	.95		3.60	.80		2.97	.70	
	1명	148	2.97	1.02		2.98	.73		3.59	.90		2.78	.63	
	2명	133	2.99	.90		2.99	.74		3.51	.86		2.83	.72	
	3명이상	101	3.02	.98		2.87	.62		3.57	.87		2.84	.63	
	F		.43			.87			.23			.61		
출생 순위	장자	138	2.77	.92	B	3.15	.72	A	3.44	.89		2.94	.66	AB
	중간	102	2.94	.92	AB	2.92	.71	AB	3.57	.86		2.81	.71	AB
	막내	146	3.23	.99	A	2.79	.65	B	3.65	.88		2.71	.63	B
	독자	24	3.21	1.11	A	3.09	.95	A	3.60	.80		2.97	.70	A
	F		5.83***			6.67***			1.51			3.20*		
부연령	40세미만	7	3.23	.94		2.96	.59		4.13	.60		2.59	.60	
	40-50미만	298	2.98	.98		2.99	.76		3.54	.90		2.87	.68	
	50이상	95	3.13	.94		2.85	.64		3.64	.79		2.72	.62	
	F		1.02			1.30			1.86			2.36		
모연령	40세미만	62	2.80	.80		3.07	.59		3.45	.92		2.70	.59	
	40-50미만	310	3.08	1.01		2.94	.76		3.58	.87		2.83	.69	
	50이상	23	2.88	.91		2.89	.61		3.52	.73		2.72	.51	
	F		2.41			.98			.64			.65		
부학력	중졸이하	196	3.10	.94		2.91	.65		3.65	.82		2.79	.63	
	고졸	163	2.92	.98		3.00	.75		3.48	.92		2.86	.67	
	대졸이상	46	3.00	1.04		3.03	.89		3.54	.83		2.89	.72	
	F		1.52			.96			1.75			.73		

변인	구분	N	부 개방형			부 문제형			모 개방형			모 문제형		
			M	SD	D	M	SD	D	M	SD	D	M	SD	D
모학력	중졸이하	225	3.00	.95		2.93	.65		3.56	.85		2.79	.62	
	고졸	160	3.02	.99		3.00	.77		3.52	.90		2.89	.70	
	대졸이상	15	3.24	1.14		2.87	1.08		3.76	.68		2.77	.78	
	F			.43			.62			.58			1.24	
부직업	단순노무,판매	50	3.12	.99		2.90	.70		3.53	.92		2.93	.65	
	농, 공, 상	272	3.00	.93		2.95	.71		3.60	.85		2.80	.67	
	일반, 사무	64	2.94	1.13		3.02	.77		3.50	.95		2.87	.68	
	전문가,고위직	17	2.98	1.08		2.97	.84		5.61	.83		2.62	.56	
	무직	3	2.17	1.12		3.90	.85		2.57	.12		3.57	.15	
	F			.78			1.46			1.18			1.84	
모직업	단순노무,판매	26	3.27	.82		3.03	.68		3.50	.71		2.90	.59	
	농, 공, 상	222	3.05	.96		2.90	.70		3.58	.87		2.80	.67	
	일반, 사무	16	2.61	1.34		3.28	1.03		3.43	.95		2.77	.72	
	전문가,고위직	5	3.34	.65		3.12	.85		4.02	.46		2.80	.81	
	무직	134	2.90	.99		3.01	.72		3.52	.91		2.86	.68	
	F			1.82			1.49			.57			.33	
생활 정도	중상이상	68	3.13	.98		2.99	.84		3.47	.92		3.01	.77	
	중	232	2.95	.96		2.94	.70		3.58	.85		2.80	.75	
	중하이하	98	2.94	.99		3.04	.70		3.51	.89		2.78	.64	
	F			.95			.68			.56			2.91	
가족 형태	핵가족	325	2.98	.96		3.01	.74		3.52	.88		2.85	.67	
	확대가족	73	2.98	1.00		2.81	.64		3.65	.81		2.75	.64	
	t			.04			2.09*			-1.21			1.15	
종교	유	231	3.02	1.01		2.97	.76		3.55	.90		2.81	.69	
	무	167	2.93	.90		2.97	.67		3.54	.83		2.86	.63	
	t			.88			-.07			.02			-.66	

* p<.05 ** p<.01 *** p<.001

고 있었다.

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모 개방형과 모 문제형 모두의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출생순위에 따라 모 문제형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았고, 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녀관계의 의사소통이 모자관계의 의사소통보다 더 원활하다는 선행연구(권보연, 2000; 신수정, 1994; 조은경, 1992; 최인경, 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 시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모에 대해 동성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의사소통은 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남학생과 막내인 경우에 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정 안에서 출생순위 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모의 연령이 높아 세대차이에서 오는 대화의 단절과 막내가 보일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

<표 3>과 같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 응집성은 성별, 생활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 응집성은 여학생의 경우, 가정의 생활정도가 높은 경우에

높게 지각되었다. 또한 가족 적응성은 성별, 출생순위, 생활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높았으며, 독자인 경우에 가족 적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가정의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의사소통 변인이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독립변수간의 다

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응집성과 적응성에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을 토대로 회귀식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 결과 가족 응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beta=.46, p<.001$)이며 다음으로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beta=.29, p<.001$), 생활정도($\beta=.17, p<.001$), 성별($\beta=-.11, p<.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생활정도가 부유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변인	구분	N	응집성			적응성		
			M	SD	D	M	SD	D
성별	여	205	3.03	.44		3.26	.70	
	남	220	2.91	.45		3.08	.62	
	t		2.78**			2.83**		
연령	16세	71	2.96	.47		3.14	.72	
	17세	127	2.97	.45		3.13	.61	
	18세	125	2.96	.46		3.20	.67	
	19세	102	2.98	.42		3.19	.69	
	F		.07			.32		
형제수	0명	26	2.97	.53		3.31	.64	
	1명	150	2.93	.48		3.13	.70	
	2명	136	2.96	.43		3.12	.67	
	3명이상	109	3.04	.42		3.22	.61	
	F		1.30			1.01		
출생 순위	장자	142	2.92	.45		3.03	.70	B
	중간	107	3.00	.39		3.20	.54	AB
	막내	150	2.99	.48		3.23	.70	AB
	독자	26	2.97	.53		3.31	.64	A
	F		.78			2.90*		
부연령	40세미만	7	3.04	.22		3.13	.67	
	40-50미만	298	2.97	.46		3.18	.68	
	50이상	95	3.01	.44		3.19	.64	
	F		.31			.03		
모연령	40세미만	63	2.89	.44		3.09	.62	
	40-50미만	322	2.99	.46		3.19	.68	
	50이상	25	3.00	.39		3.13	.66	
	F		1.30			.63		

변인	구분	N	응집성			적응성		
			M	SD	D	M	SD	D
부학력	중졸이하	196	3.02	.45		3.24	.63	
	고졸	163	2.94	.47		3.12	.69	
	대졸이상	46	2.92	.36		3.14	.66	
	F		2.00			1.62		
모학력	중졸이하	237	2.97	.46		3.17	.65	
	고졸	162	2.97	.45		3.15	.67	
	대졸이상	16	3.05	.42		3.28	.73	
	F		.22			.26		
부직업	단순노무,판매	50	3.00	.41		3.28	.62	
	농, 공, 상	272	2.98	.46		3.16	.65	
	일반, 사무	64	2.92	.46		3.14	.76	
	전문가, 고위직	18	2.94	.41		3.10	.62	
	무직	3	2.42	.56		2.60	.89	
	F		1.45			.99		
모직업	단순노무,판매	29	2.98	.42		3.10	.65	
	농, 공, 상	230	3.00	.46		3.19	.64	
	일반, 사무	18	2.75	.44		2.93	.92	
	전문가, 고위직	5	3.26	.33		3.63	.27	
	무직	136	2.93	.43		3.13	.68	
	F		2.15			1.37		
생활정도	중상이상	69	3.11	.44	A	3.32	.67	A
	중	240	2.97	.43	AB	3.16	.65	AB
	중하이하	104	2.86	.47	B	3.04	.69	B
	F		6.41**			3.80*		
가족형태	핵가족	334	2.98	.44		3.17	.66	
	확대가족	78	2.93	.48		3.09	.67	
	t		.90			1.02		
종교	유	238	2.98	.46		3.15	.68	
	무	174	2.95	.44		3.17	.65	
	t		.54			- .28		

* p< .05 ** p< .01

할수록, 여학생이 가족 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가족 응집성을 51% 설명해 주고 있다.

가족 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응집성과 마찬가지로 <표 5>과 같이 부와의 개방적 의사

소통($\beta=.51, p<.001$),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beta=.25, p<.001$),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beta=-.15, p<.01$) 순으로 나타났고, 생활정도($\beta=.14, p<.01$), 성별($\beta=.08, p<.05$) 이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모와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 변인,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간의 상관관계

변인	구분	응집성	적응성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005	.047
	성별	-.166***	-.121*
	형제수	.082	.002
	부연령	.024	-.004
	모연령	.077	.045
	부교육	-.086	-.040
	모교육	.029	.021
	생활정도	.162**	.150**
	가족형태	-.019	.060
	종교	.052	.045
의사소통	부개방형	.651***	.726***
	부문제형	-.376***	-.489***
	모개방형	.592***	.601***
	모문제형	-.255***	-.316***

* p< .05 ** p< .01 *** p< .001

가변수화(dummy) 처리

성별(여자:0, 남자:1), 가족형태(핵가족:0, 확대가족:1), 종교(무:0, 유:1)

〈표 5〉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응집성		적응성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1.58	-.11**	-1.43	-.08*
	생활정도	1.53	.17***	1.58	.14**
의사소통	부개방형	.34	.46***	.49	.51***
	부문제형	-.05	-.05	-.19	-.15**
	모개방형	.24	.29***	.27	.25***
	모문제형	.07	.07	.10	.07
F		62.94***		87.76***	
R2		.51		.60	
DW		1.87		1.84	

* p< .05 ** p< .01 *** p< .001

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수록, 생활정도가 부유할수록, 여학생일수록 가족 적응성을 높게 지각했다. 이들 변인들은 가족 적응성을 60% 설명해 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차이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청소년들에게 가족내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자녀는 부모다는 모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더 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와 남학생들간에는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부모는 자녀의 사고와 태도에 대한 명확한 지각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부모-자녀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공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의사소통 변인이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가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서 의사소통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가족 응집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유무가 성장기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

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가정들을 위기가정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상대적 결론 또한 명확해진다. 무엇보다 가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부모교육과 상담 등이 사회적으로 체계화되어 가족내에서의 응집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가족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개방된 의사소통이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일차적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시 적극적인 반응과 우호적 태도로서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줌으로써 가족들에게 친밀감을 주어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가족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각종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속에서 올바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가 수립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전남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일부 학생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타지역이나 청소년기 자녀 전체에까지 일반화시키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교 자녀로만 한정시켰기 때문에 부모-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이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청소년 자녀의 입장에서만 파악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일치도, 지각의 차이점을 통해 세대간의 특징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를 가족차원으로 바꾸어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 응집성, 적응성의 점수가 높은 가족과 낮은 가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과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경험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인숙·옥선화·이기춘·이순형(1991).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국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보연(2000).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자(1991).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미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교문사.

김순옥(1989). 한국의 가족의사소통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71-83.

_____(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개방성과 그 귀인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윤희(1990). 부부관계·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희(1988).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고교 남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정화(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

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옥선화(1985). 자녀문제와 대책-청소년자녀와 부모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박금순(편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

이경주(1989).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길(2002).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 적응성,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여고생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숙(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청소년자녀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경(1992). 부모·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은정(1993). 청소년 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울산시의 중학생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희응(1977). 결혼가정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보연(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논리사고의 관계 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arnes, H. & Olson, D. H.(1985).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Galvin, K.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2nd ed),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Gross, I. N., Crandall, E. W. &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Honecutt, J. M., Wildson, C. & Parker, C.(1982). Effects of sex and degrees of happiness on perceived styles of communication in and out of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95-406.

Olson, D. H., McCubbin, H. I., Barner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9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 N.: Univ. of Minnesota press.

Olson, D. H., Portner, J. & Bell, R.(1982). *FACESII* in Olson, D. H., McCubbin, H. I., Barner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y, Family Social Science, M. N.: Univ. of Minnesota press.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Cohen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3-28.

_____(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차이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청소년들에게 가족내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남지역 고등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차이는 부개방형은 출생순위에 따라, 부문제형은 성별, 출생순위, 가족형태에 따라, 모개방형은 성별에 따라, 모문제형은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이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장자가 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막내인 경우에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가족인 경우에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살펴보면 가족 응집성은 성별과 생활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인 경우, 가정의 생활정도가 높은 경우에 가족 응집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가족 적응성은 성별, 출생순위, 생활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인 경우, 독자인 경우, 가정의 생활정도가 높은 경우에 가족 적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셋째, 가족 응집성은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생활정도,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생활정도가 부유할수록, 여학생이 가족 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적응성은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생활정도,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아버지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수록, 생활정도가 부유할수록, 여학생일수록 가족 적응성을 높게 지각하였다.